

HYUNDAI E&C TODAY

Vol 406
2021/10/21 THU

발행인 윤영준
편집인 한성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을지로 75 현대빌딩
신고번호 종로 다0049

2021-2022 시즌 V리그 개막

V리그 홈 개막전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한 현대건설 배구단! <사보신문>에서는 21-22시즌 대장정에 돌입한 현대건설의 배구단의 우승 전략을 엿보고,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선수들을 만나봤다.



세계 최대 대관람차 아인 두바이(Ain Dubai) '놀라움'의 기준을 바꾸다

10월 21일 정식 오픈...
현대건설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250m 높이의 대관람차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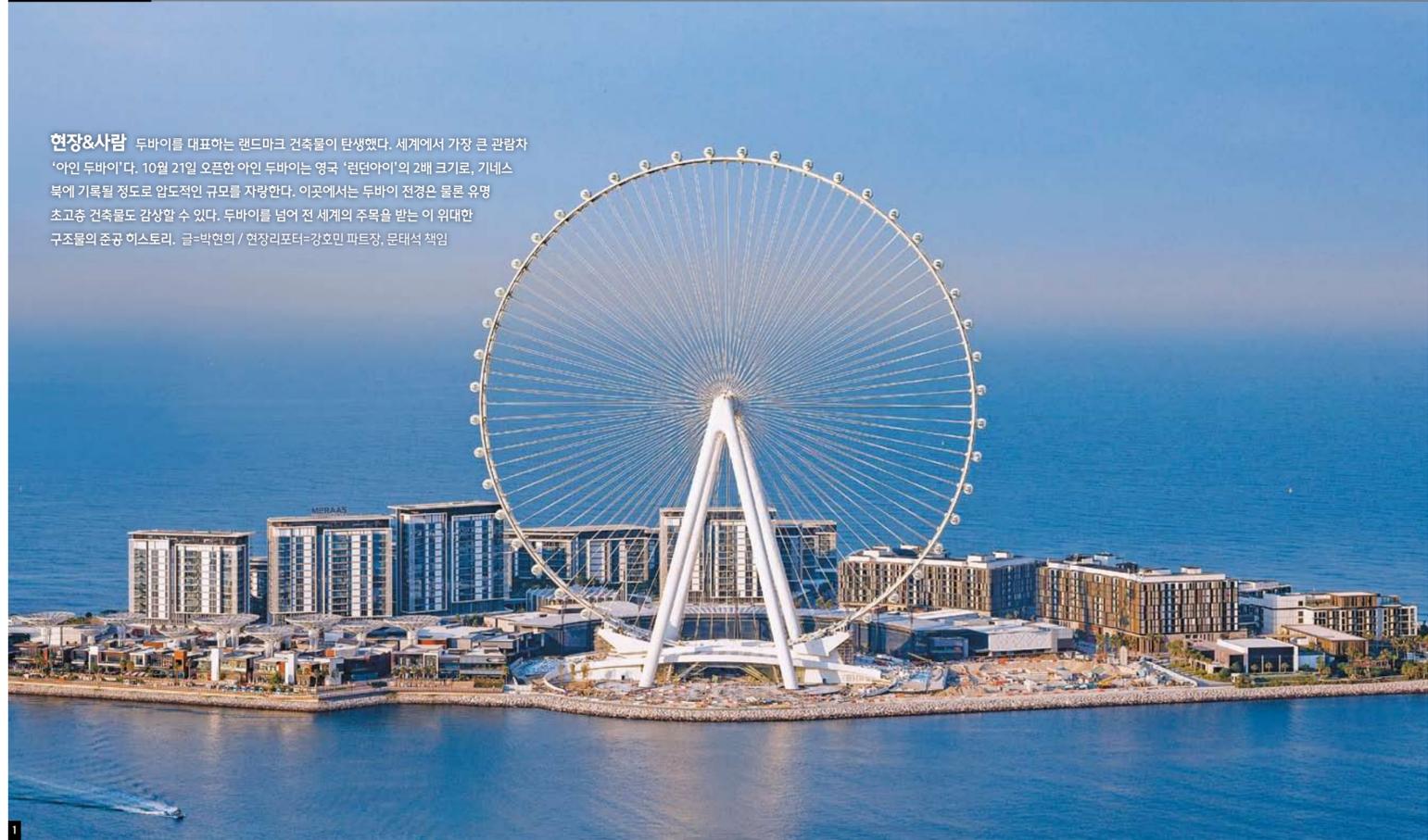
두바이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블루워터스 아일랜드'에 새로운 명물이 등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거대한 대관람차 '아인 두바이'가 바로 그 주인공. '런던아이'가 영국의 아이콘으로 존재했다면, 두바이에는 이를 넘어서는 '아인 두바이'가 있다. 주변을 압도하는 웅장함은 물론 두바이의 유명 랜드마크와 멋진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현대건설의 주도 아래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11개국의 협력으로 탄생한 '아인 두바이'는 63빌딩과 맞먹는 250m 높이로, '런던아이'(135m)보다 두 배가량 크다. 관람객을 태우는 48개의 탑승칸(Cabin)은 최대 1750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360도로 회전하면서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다. 탑승칸 1개가 이층버스 두 대를 붙여놓은 것보다 커다랗고, 한 바퀴 도는 데 38분이 걸린다. 세계 최고 높이로 기록을 세운 만큼 소요된 자재의 수량도 상상을 초월한다. 총 1만1200t의 철강이 구조물에 투입됐는데, 파리 에펠탑에 사용된 양보다 약 33% 많다. 또한 구조물 중심(hub)과 지지대(spindle) 무게는 1805t으로 대형 여객기 A380 4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작에 사용된 와이어를 길게 늘어놓으면 서울에서 부산을 다섯 번(2400km)가량 주회할 수 있다. 수많은 기록을 갱신하며 세계 건축사에 한 획을 긋는 역작으로 평가 받는 '아인 두바이'. 현대건설의 기술력으로 완성된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10월 21일 대중에게 첫 공개됐다. <관련기사 6, 7면>

A new must-see destination is expected to open on Bluewaters Island, one of the most impressive tourism hotspots in Dubai: Ain Dubai is the tallest and largest observation wheel in the world. Ain Dubai is much higher than the London Eye, an iconic symbol of the United Kingdom. Boasting of its unparalleled presence, Ain Dubai offers the city's fantastic skyline and unforgettable glimpses of famous landmarks. Standing at more than 250 meters, it is almost twice the size of the London Eye. Ain Dubai has been successfully created in cooperation with 11 key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the Netherlands and Korea. Hyundai E&C, Korea's primary builder, wa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of the monument. The 48 passenger cabins have capacity to carry up to 1,750 visitors at one time who can enjoy breathtaking 360-degree views of the city. The luxurious cabins, larger than two double decker busses strapped together, provide a relaxing yet mesmerizing 38-minute journey for visitors. An unbeatable amount of construction materials were required to build the giant wheel which has joined Dubai's long list of world record-breaking attractions. A total of 11,200 tons of steel were utilized, approximately 33 percent more than the amount of steel used to construct the iconic Eiffel Tower in Paris. The structure's hub and spindle weigh 1,805 tons equivalent to four A380 airplanes.



UNLIMITED
HYUNDAI E&C

현대건설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현대정신'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사보신문>은 구체적 실천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건설 리더'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건설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2 아인 두바이 이전. 높이 258m, 직경 250m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웅장한 회전 구조물은 낮과 밤 모두 매력적이다. 3 월에는 이층버스 2대 규모의 캐빈 48개가 달려 있으며, 캐빈당 최대 수용 인원은 40명이다. 4,3000급 메가 크레인을 이용해 허브-스핀들을 거처하고 있다. 허브-스핀들의 무게는 1805t에 달한다. 5 현장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행잉 플랫폼, 일종의 대형 작업대로 훗이 회전하더라도 별도의 체체나 조립이 필요 없다. 현장은 행잉 플랫폼으로 링 상부와 하부 시공을 동시에 진행했다.

현장&사람 두바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탄생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관람차 '아인 두바이'다. 10월 21일 오픈한 아인 두바이는 영국 '런던아이'의 2배 크기로, 기네스 북에 기록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에서는 두바이 전경은 물론 유명 초고층 건축물도 감상할 수 있다. 두바이를 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 위대한 구조물의 준공 히스토리를. 글=박현의 / 현장리포터=강오민 파트장, 문태석 책임

아인 두바이(Ain Dubai) 현장

런던아이 2배 규모 ...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 관람차

10월 21일 개장, 두바이를 조망하는 역대급 스폿

언젠가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다면, 그 첫 여행지로 두바이를 추천한다. 최근 오픈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거대한 관람차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이유는 충분할 듯싶다.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셰이크 자예드 로드(Sheikh Zayed Road)를 이용해 차량으로 40분가량 달리면 거대한 규모의 회전 구조물이 두 눈을 사로잡는다. 높이 258m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아인 두바이(Ain Dubai)다. 그 규모가 짐작 가지 않는다면 영국 런던아이(높이 135m)의 2배 크기를 상상하거나, 높이 249.6m의 여의도 63빌딩을 떠올리면 된다.

아인 두바이는 현지시간으로 10월 21일 오후 2시 성대하게 개장했다. 아인 두바이 전경을 조망하고 싶다면 마리나 해변을 찾아야 한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를 배경 삼아 해변 배사장에 누워 인공섬 블루워터스(Blue Waters)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관람차를 구경하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이다. 오래 참아온 여행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 타보아야 한다.

블루워터스에서는 아인 두바이의 아찔한 규모가 더욱 실감이 난다. 직경 250m의 거대한 휠(Wheel)과 이를 지탱하는 다리 기둥은 실로 엄청나다. 기둥 하나는 126m로 런던버스 15대를 늘어놓은 길이다. 관람객을 태우는 캐빈(Cabin) 역시 메가 사이드다. 휠에는 이층버스 2대 규모의 캐빈 48개가 달려 있으며, 캐빈당 최대 4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캐빈은 일반 관람객을 위한 'Observation', 가운데 바(Bar)가 있는 VIP용 'Social', 관람차가 2회전하는 동안 다녀 코스를 먹을 수 있고 예약제로 운영하는 'Private' 세 종류가 있다. 1인 가격이 기본 130디르함(4만2000원 남짓)에서 시작돼 저렴하진 않다. 그러나 세계 최대 높이의 관람차에서 360도로

난 통창을 통해 38분 동안 도시 전경을 고루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비용이 아깝지 않다. 유명 초고층 빌딩도 아인 두바이에서라면 눈높이가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인 두바이의 아인(Ain)은 아랍어로 눈(Eye)이라는 뜻이다. 담초 아인 두바이는 런던아이처럼 '두바이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동명의 라디오 방송사가 있어 지금의 이름이 붙었다. 해 질 무렵 '두바이의 눈'에서 보는 전경은 경험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할하다. 땅거미가 모두 내려앉은 후에는 가히 두바이 최고의 야경을 자랑한다.

11개국 이상의 협력사이공 프로젝트 리더

아인 두바이 프로젝트에서 우리 회사는 관람차와 관련 부대설비 공사 일체를 맡았다. 특별히 설계·구매·제작·설치·시운전을 일괄 수주하는 EPCI(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Installation) 방식으로 계약한 터라, 프로젝트



트 리더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공사를 수행했다. 현장 직원들은 "2013년 5월 착공부터 2021년 8월 준공까지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며 "시공 난도가 상상을 초월했다"고 말한다. 관람차는 크게 휠과 캐빈, 휠을 지지하고 움직이게 하는 구동축인 허브-스핀들(Hub-Spindle), 이를 지지하는 다리 기둥으로 나뉜다. 공사 초기 현장은 휠 설계와 설치 방법 확정, 철 구조물(휠, 허브-스핀들, 기둥 등) 제작, 휠 기초 공사 등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EPCI 특성상 설계 단계에서 ▶시공성 파악 ▶자재 조달 ▶발주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모두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회사는 최고의 관람차를 탄생시키기 위해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 등 11개국 이상의 수많은 협력사와 협력했다. 다양한 국적의 회사들이 이끄는 데다, 안전상의 이유로 까다로운 감리를 받아야 했기에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많은 힘을 쏟아야 했다.



2015년 6월 기둥 공사를 마친 현장은 전 공정 중 가장 난도 높은 허브-스핀들 설치 준비에 돌입했다. 관람차는 회전하는 구조물이기에 회전으로 인한 응력(외력)이 가해졌을 때 구조물에 생기는 저항력) 변화와 구조물의 피로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회전 중심부의 허브-스핀들은 관람차를 가동-제어하는 드라이브 시스템과 연동돼 있고, 3500t의 휠 무게를 견뎌야 했다. 대형 여객기 A380 4대와 맞먹는 1805t의 허브-스핀들 시공에는 3000급 메가 크레인 2대를 동원했다. 130m 높이를 들어 올려 허브-스핀들의 연결부(Hole)와 기둥의 연결부를 정확하게 안착시킨 후 접합해야 했기에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현장은 정밀시공을 위해 가설 가이드 프레임 설치하고, 각종 도구를 총동원에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며 2016년 7월 허브-스핀들을 안착시켰다.

가장 어려운 공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현장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갔다. 역대급 규모를 자랑하는 휠은 8개의 세그먼트(Segment)로 나눠 시공했다. 여기에는 현장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행잉 플랫폼(Hanging Platform)'이 빛을 발했다. 행잉 플랫폼은 림(Rim, 휠의 가장자리 철골 구조물) 작업 시 휠이 회전하더라도 별도의 이동과 재설치가 필요없는 100m 길이의 대형 작업대다. 림 시공과 지상 터미널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일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한 휠 시공은 2018년 3월까지 이어졌다. 이후 휠의 인장력을 높이기 위한 스포크 케이블(Spoke Cable) 설치를 2019년 8월 완료한 현장은 ▶드라이브 시스템 구축 ▶버스 바(Bus bar, 캐빈 전력공급 설비) 및 LED 시공 ▶48개 캐빈 설치 ▶시운전 및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 2021년 8월 1일 발주처로부터 TOC(Taking Over Certificate)를 받으며

준공이라는 값진 결실을 거뒀다.

물음표를 느낌표로...전 공정 무재해 기록!

아인 두바이는 구조물의 안전성까지 세계 최고를 자부한다. 휠, 기둥, 허브-스핀들에 사용된 철강만 9200t, 부재와 기타 구조물 등을 포함하면 1만1200t에 달한다. 이는 파리 에펠탑보다 33% 더 많은 양이다. 회전하면서 받는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고강도 특수 강재를 사용했으며, 2475년 주기 지진 및 최고 풍속 45m/s 강풍에도 끄떡없도록 설계했다.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막판의 준비 또한 마쳤다. 제어시스템을 복선화해 1개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시스템을 통해 제어할 수 있으며, 정전 시에도 비상발전기와 디젤엔진이 작동해 휠을 회전시킬 수 있다.

99개월이라는 공기는 육에 티 없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연이었다. 발주처와 운영사인 두바이 홀딩스(Dubai Holdings)와 메라스(MERAAS)는 시공 품질, 안전 등 모든 면에서 완벽을 요구했다. 우리 회사는 세계 최고·최대의 건축물을 건설해 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주처와 감리사의 엄격한 품질-안전 기준을 통과했다. 최고 난도 현장임에도 무사고 925만3558시간을 기록하며 '전 공정 무재해'로 준공했다는 사실 또한 프로젝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기술을 예술로 만드는 것은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이자 우리가 가장 잘 하는 일이다.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초대형 회전 구조물이 완성되기까지 '불가능'이란 단어가 내내 따라다녔으나, 우리 회사는 숩한 기술적 어려움과 환경을 이겨내고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었다. 현장 직원들 역시 "현대건설이기에 가능한 프로젝트"라며 "세계적인 건설사로서의 명성을 더욱 크게 얻어 앞으로의 수주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성공 준공, 현건인으로서의 능력과 품격을 말하다"



10월 21일 아인 두바이가 오픈했습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관람차를 준공한 소외가 금급합니다.

이창환 소장(이하 현장소장) 건설인으로서 평생 경험해 온 프로젝트 중 가장 특별한 현장이었습니다. 그 희소성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과 난관을 겪었지만, 인고의 시간 끝에 완공했을 때의 감회는 여타 프로젝트 때와 크게 달랐습니다. 많은 이가 준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할 만큼 어려운 공사였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면을 빌려 고생한 모든 직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영수 책임(이하 이영수)** 6년6개월간 현장에서 휠 구조 설계와 시공 트러블 슈팅(Trouble Shooting)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수 책임입니다. 우리 현장은 감리사 메니저조차 "성공적으로 준공할지 몰랐다"는 말을 할 정도로 난공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장님 이하 현장 직원들과 캐빈에 시현 탑승했을 때의 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몽글했습니다. "마침내 완성됐구나!"라는 탄성과 함께 성취감과 자부심을 크게 느꼈죠. **박진수 파트장(이하 박진수)** 현장에서 드라이브 시스템 및 MEP(기계-전기-설비) 시공을 하다, 현재는 기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블루워터스 인근에 유람선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예외 없이 현장 앞에서 배를 세우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뿌듯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알 못할 두바이의 랜드마크 구조물을 건설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강호민 파트장(이하 강호민)** 사업지원 및 공사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 캐빈을 발주처와 약속한 날 어렵게 설치해했을 때 그동안의 힘들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과정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발주처와 운영사도 알았기에 "현대건설의 기술력에 정말 놀랐고, 감사하다"며 기념사진 촬영을 제안하기도 했죠. 이때 받은 기운으로 준공까지 더욱 매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느 관람차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 만큼 숩한 어려움을 극복해냈다고 들었습니다.

박진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연속 운전 테스트를 할 때 갑자기 드라이브 시스템의 가이드 부품 일부가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년 이상 잘 사용했던 시스템이라 이 같은 리스크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더욱 당혹스러웠는데요. 긴급하게 임시 자재를 제작하고 설치한 결과 큰 공이 지연 없이 시운전 및 연속운전 테스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강호민** 휠 공사는 복합 공정으로 토목·건축·기계·전기·계장 등 간에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공정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각 협력사 사장들을 직접 찾아가 협업을 요청하고, 때로는 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달래며 각 공정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영수** 아인 두바이는 초대형 회전 구조물입니다. 베어링(Bearing)은 허브-스핀들 내의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데요. 기존에 설치한 가설 베어링이 예상보다 큰 마찰력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즉시 발주처 사장과 소장님과 함께 네덜란드로 날아가 베어링 설계사 및 제작업체를 만났고, 아인 두바이 맞춤형 베어링을 제작해 삽입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하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느꼈던 순간이었죠. **현장소장** 지금까지 시공된 관람차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수많은 검증과 테스트를 거쳐야 했고, 공정마다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이 발생했죠. 이는 곧 공정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려 많은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했으나, 그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비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집중력을 발휘했고, 현장 직원들은 전력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전 과정을 발주처, 감리사, 해와 협력사들과 협업해야 했기에 치밀한 전략과 부단한 인내가 필요했는데요. 현장이 오픈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본사 직원들과도 준공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현장 직원들에게 한마디.

강호민 공사를 수행하며 우리 직원들이 별명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소재를 찾아 나섰고, 새로운 설치 방법을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조달할 수 없었기에 전 세계를 뒤져 전문가와 필요 자재를 구한 것도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한때는 '현대건설이 기술적인 문제로 휠을 완료하지 못하고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디. 우리는 확신이었었지만, 후자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모든 직원이 멋지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박진수** 착공부터 준공까지 '강-강-강'인 현장이었기에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분에게 고마움과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현대건설 아인 두바이 현장 파이팅! **이영수** 구조 설계를 위해 본사 토목설계실과 기술원무원의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디. 그 자문 덕분에 현장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은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터득한 수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수 구조 전문가로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장소장** 우리 현장에서 단련된 사람이라면 웬만한 어려움도 거뜬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을 했다는 뜻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건설인의 능력과 품격을 구성하는 큰 역량이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두 배우를 만나다

피플인사이드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두 배우, 이정재(성기훈 역)와 박해수(조상우 역)는 실제 본인의 모습을 묻는 말에 각자 상대가 연기한 캐릭터를 골랐다. 지난 9월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정재는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기훈은 굉장히 영화적인 캐릭터”라며 “상우 같은 캐릭터가 그런 상황에서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김정연 <중앙일보> 기자 / 사진=넷플릭스 제공

이정재 “생활연기 위해 밤거리 행인 관찰”

이정재가 연기한 ‘기훈’은 고정된 직장 없이 대리기사로 근근이 일하며 쌍문동 반지하에 사는 처지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사바하> <신과함께> <신세계> 등 최근 작품에서 보여준 강렬한 캐릭터와 전혀 다르다.

Q 오징어게임 배역 ‘기훈’은 어떻게 만나게 됐나?

나이가 들고 악역, 센 역할밖에 안 들어와서 새로운 모습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황동혁 감독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자 역할’을 제안했다. 황 감독과 일하는 것도 반가웠지만 ‘기훈’ 캐릭터여서 더 반가웠다. 기훈을 표현하며 조금 자신 없는 장면도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정재씨 본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 조금 더 썼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말해줘서 기훈 캐릭터를 받아들이고 잘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다.

Q 기훈의 전반적인 콘셉트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덥수룩한 머리, 아무렇게나 입은 듯한 옷차림 등은 <신세계> <사바하> 등을 함께 작업한 조상경 실장의 작품이다. 확실히 오징어가 됐다(웃음). 아마 이정재를 뭘 어떻게 입혀서 진짜 쌍문동 반지하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처음 미팅 때는 사이즈도 안 맞고, ‘위아래를 왜 이렇게 매치해서 입지?’ 할 정도의 콘셉트로 잡아 왔는데, 그게 기훈 역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주는 대로 입겠다고 했다.

Q 어떤 연기가 제일 힘들었나?

생활연기가 가장 힘들었다. 강한 캐릭터는 설정만 잡으면 연기가 수월한데, 생활연기는 일상에 있는 사람같이 보여야 하고 자연스러워야 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 밤에 많이 걸어 다니면서 거리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훈’을 그려려고 했다. 반면에 게임 상황에서는 극한의 연기를 해야 했다. 오징어게임 중 달고나 게임 때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상과 극한을 오가는 연기를 하면서 수위와 표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Q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도시락 공기 먹방’은 알고 있나?

극 중 도시락에 담긴 음식을 열심히 먹는 것 같지만 빈 수저질만 반복하는 모습이다. 첫 테이크 때는 잘 먹는데, 5번 째 넘어가면 배가 부르기 시작해서 요령을 좀 피운다. 등지고 있는 장면이라 잘 안 나올 줄 알고 요령을 피웠던 것 같은데, 그 컷을 쓰셨더라. 너무 잘 먹어서 편 집하면서도 모르셨나 보다(웃음).

박해수 “명문대 출신 만나 자격지심 탐구”

성기훈과 한동네에서 자라 서울대 경영학대에 수석 입학한 수재이자, 여의도 증권맨에서 거액의 빚을 진 도망자 신세가 된 ‘조상우’ 역의 박해수는 “작품을 할 때는 조상우 캐릭터에 이질감을 못 느꼈고, 마치 연기가 아닌 것 같이 게임에서 선택이 너무 쉬워지기도 했었다”고 했다.

Q 상우를 연기할 때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계산적이고 판단이 빠른 ‘조상우’가 누군가를 배신할 때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상대 배우를 좋아했기 때문에 많이 아팠다. 내가 살기 위해 나 대신 죽을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공감해야 하는데, 생각이 많아질 때면 황동혁 감독과 상우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힌트를 얻곤 했다. 낯선 캐릭터를 입기 위해 ‘명문대 나온 사람들’을 찾아 만났다. 조상우는 자격지심도 있고, 1위가 아닐 때 스스로 박탈감도 크다. 1위 지향적인 우리나라에서 명문대 사람들이 가진 박탈감과 자격지

심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싶어서 여러 명을 만나서 인터뷰도 했다.

Q 게임장에서 기훈과의 재회는 어땠나. ‘기훈’과 ‘상우’는 본래 같은 동네에서 형동생 하며 자란 사이다. 게임장에서 상우를 만난 기훈은 물색없이 반가움을 표하지만, 상우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거리감을 내비친다. 조상우는 1등이자 최고가 돼서 돈을 벌 순 있었겠지만, 성기훈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향은 가질 수 없었던 거다. 그래서 사람들을 아우르고, 데리고 다니는 성기훈에게 질투심을 가졌다. 이 때문에 성인이 돼서 만났을 때도 경계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Q 촬영 중인 드라마가 있다고 들었다.

현재 넷플릭스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의 한국판도 촬영 중이다. 오랜 연극 배우 생활 후 뒤늦게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2019년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최고령으로 수상했다. 운 좋게 넷플릭스가 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는 건 운명이라 생각한다. 혹시 보너스를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다(웃음).

1 오징어게임에 참가한 사람들과 진행요원의 모습. 2 서로를 지키기 위해 동맹을 맺은 3인. 3 게임을 위해 모인 참가자들.



간헐적 채식이 유행이라고? 환경에 꽃힌 250만 '유연한 채식생활'

ESG 칼럼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 생산으로 인한 메탄가스의 증가는 지구온난화 가속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지구를 사랑하지만 육식을 포기할 수 없다면,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 주 2~3회나 하루에 한 끼 등 유연하게 채식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플렉시테리언'(간헐적 채식주의자)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글=이소아 <중앙일보> 기자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Vegetarian)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묘사돼 왔다. 그 중에서도 육류와 생선은 물론 우유·계란·꿀 등 동물에서 나오는 식품을 일절 거부하는 '비건(Vegan)'은 단체 생활에 부적합한 까다로운 소수자로 여겨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최근 비건이 일반 대중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건의 목적이 동물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보편적 가치로 넓어지고, 일상에서 이를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경우 비건이란 이름을 붙인다. 심적 거리감이 줄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제 비건은 '베지테리언'을 대신하는 유행어가 됐다.

직장인 김모씨는 자칭 비건이다. 소·돼지 등 가축을 키우는 일이 엄청난 탄소를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채식을 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건 아니다. 그는 "주말엔 고기를 먹지 않는다거나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를 마시는 식으로 채식을 늘리고 있다"며 "크게 힘들지 않으면서 여드름도 덜 나는 것 같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니 여러 가지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유연하게 채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언(flexible+vegetarian)'이 많아지면서 채식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서 2018년 150만 명으로 10년 만에 10배가 늘었다. 지난해 200만 명에서 올해는 250만 명으로 추정돼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엄격하든 느슨하든 채식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이유는 크게 건강·동물보호·환경 등 세 가지다. 이 중 채식이 육식보다 건강에 좋은지는 의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부분이다. 하지만 동물보호와 환경 이슈는 상대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50대 중반인 이모씨는 딸의 성화에 강아지를 기르면서 채식을 하게 된 사례다. "원래 개고기도 먹었다"는 그는 "강아지와 가족처럼 지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굳이 대량으로 키워 도축되는 고기를 먹어야 하나 싶어 어쩔 수 없는 자리가 아니면 붉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에 부담 주는 대량축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반려동물 가구는 604만 가구로 국내 전체 가구의 약 30%에 해당하며 인구로는 1500만 명에 육박한다. 이 중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 Fam)'도 많아 비윤리적인 사육·도축 시스템에 거부감을 느끼며 채식

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또 동물복지 차원에서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 옷이나 가방에 동물 가죽 사용을 반대하기도 한다.

환경 문제는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와 맞물려 채식 인구 증가의 가장 두드러진 배경이 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사이트(OWID)에 따르면 농·축산업은 인간이 발생시키는 이산화질소의 81%, 메탄의 44%, 이산화탄소의 13%를 차지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소와 양의 사육 때문이다. 단백질 1g을 얻기 위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필요한 땅과 물의 양도 소와 양, 돼지가 월등히 높다.

젊은층 96% "환경 위해 식습관 바꾼다"

환경오염 문제에 가장 민감한 건 20·30대가 주축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다. MZ세대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 4월 MZ세대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6%가 환경을 위해 음식·식사와 관련한 습관을 바꾼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3명 중 1명(27.4%)이 채식과 육식을 병행하는 간헐적 채식을 실천하고 있었다.

채식을 실천하는 방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를 안 먹으려고 노력한다' 'SNS에서 본 핫한 비건 식당에 가봤다' '고기 먹은 날엔 간식이라도 채식으로 챙겨 먹는다' 등으로 다양했다. 엄격하고 금욕적인 식단 제한 대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실천하는 셈이다.

서울 신촌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박모씨는 "처음엔 고객의 헤어와 두피 건강을 위해 식물성 아로마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가 환경 분야로 시각이 넓어지면서 결국 내 생활 속 모든 것이 비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과도한 육식 등 먹는 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자 감정과 기분을 다스릴 수 있게 됐고, 쓰레기 하나를 버릴 때도 함께 사는 환경을 위해 더 꼼꼼히 분리 배출하는 등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커졌다고 했다. 그 역시 허기 질 땐 계란이나 버터, 우유 정도는 먹는다. 박씨는 "환경·사회와 내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받는다는 점이 비건 라이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빠르게 증가하는 비건 먹거리

'비건 라이프'의 대중화는 시장의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대표적인 장보기앱 중 하나인 마켓컬리가 최근 3년 비건 관련 상품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반기마다 평균 57%씩 증가하며

빠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품목도 샐러드뿐 아니라 아몬드·귀리 우유 등 비건 음료, 콩으로 만든 라구 소스나 식물성 마요네즈 같은 비건 소스, 비건 디저트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고기 대신 고기의 맛을 내는 다양한 대체육 상품이 확산하면서 비건 간편식이 전체 비건 상품 판매량의 14%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기업 SPC삼립은 지난 3월 미국의 식품 기업인 '저스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저스트는 녹두 단백질로 계란 맛을 구현한 '저스트 에그'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SPC삼립은 올 하반기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기업이 운영하는 샐러드 전문 식당 '피그인터가든'의 올 상반기 매출도 1년 전보다 172%나 증가했다.

'개념소비' 브랜드 된 비건 라이프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코로나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는데 특히 MZ세대는 친환경·윤리 소비에 대한 합의를 이뤄진 세대"라며 "예전에 비건이 독특하거나 극단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됐다면, 지금은 '나도 개념소비, 윤리소비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표방하는 일종의 브랜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건 트렌드가 먹거리는 물론 소비자 산업 전반으로 퍼지면서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가치를 드러내는 브랜드가 선택받는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식에도 단계가 있다?

미국 환경단체 NRDC에 따르면 소고기 1인분(200g)을 생산할 때 무려 5.1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 비건(Vegan)을 다짐하더라도 채식만 하며 사는 삶은 그리 쉽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어쩔 수 없을 때만 육식을 하거나, 일주일에 하루 만이라도 육식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자연을 지키는 활동이 된다.

- 프루테리언(Fruitarian) 과일과 곡식만 섭취
- 비건(Vegan) 모든 종류의 동물성 식재료를 먹지 않음
- 락토(Lacto) 유제품 섭취
- 오보(Ovo) 달걀이 들어간 음식은 섭취
- 락토오보(Lacto-Ovo) 유제품, 달걀이 들어간 음식 섭취
- 페스코(Pesco) 유제품, 달걀, 해산물까지 섭취
- 폴로(Pollo) 해산물과 닭고기 같은 가금류는 섭취
-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 채식을 위주로 하되 상황에 맞게 육식도 섭취

사랑과 일, 모두 성공하고 싶은 그녀의 고군분투기 <에밀리, 파리에 가다>로 보는 파리

영화 따라 랜선투어 길어지는 팬데믹으로 여행이 아련한 첫사랑과 비슷한 존재가 된 지 오래다. 수많은 여행 매니아들이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집에서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 더욱 몰입하게 됐고, 이 기막힌 타이밍에 여행 욕구를 채워주는 작품을 발견했다. 넷플릭스의 <에밀리, 파리에 가다>이다. 낭만 가득한 프랑스 파리, 아름다운 그녀가 선보이는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 혼돈한 인물들까지, 잠시도 눈을 땄 수 없게 만들었던 10부작 시리즈. 그 아름다운 파리로 랜선 여행을 떠나보자.
글·사진=루꼴 여행작가

쉽지 않은 그녀의 파리 적응기

여행을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한 번쯤 파리에서의 삶을 꿈꾼 이들이 많을 것 같다. 센강에서 산책하며 와인을 마시고, 에펠탑을 바라보며 연인과 손을 잡고, 노천카페에 앉아 핫초코와 크루아상을 먹으면서 살아보는 꿈 쉽게 이뤄지지 않기에 더욱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에밀리, 파리에 가다>는 시카고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에밀리(릴리 콜린스)가 갑자기 파리로 발령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사실 이 드라마가 상영되기 전부터 빅 히트의 조짐은 충분히 있었다. 제작자인 '대런 스타'는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 제작자로, 과거 <베버리 힐스 아이들> <섹스 앤 더 시티> <영거> 등 이미 수많은 히트작을 배출한 업계 최고의 1인자이기 때문이다.

시카고 길버트 그룹의 마케팅 담당으로 일하는 에밀리 쿠퍼는 열정 가득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다. 원래 파견하기로 했던 상사 매들린의 임신으로 갑작스럽게 에밀리의 파리 파견이 결정된다. 설렘을 안고 길버트 그룹이 인수한 파리의 마케팅 회사 사부아르로 떠난 그녀를 반기는 건 직원들의 차가운 반응. 인수를 당한 회사 직원들이 그녀를 따뜻하게 반겨줄 리 없는 데다 불어를 하지 못하니 더욱 친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혼자 밥을 먹고,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며 서러움과 외로움에 사무치기도 했지만 씩씩하게 자신의 전문 분야인 마케팅 업무로 동료들과 소통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점차 능력을 인정받는다. 드라마에서 그녀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담당자로 나오는데 일과 일상을 어찌나 잘 보여주는지 가상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마치 현실 속 그녀의 전부처럼 느껴진다.

새 회사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한 에밀리가 혼자 점심을 먹던 곳은 팔레 루아얄 정원(Jardin du Palais Royal)이다. 이곳에서 에밀리는 파리 생활에 큰 힘이 되어줄 좋은 친구 민디를 만난다. 루브르 궁전에 연결돼 있는 이곳은 과거 루이 13세의 재상 리슐리외의 저택이었는데 그가 죽은 후 왕가에 기증되면서 '왕궁'을 뜻하는 '팔레 루아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고풍스러우면서 아름답고도 평화로운 분위기의 이 정원은 베르사유 궁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왕족들의 실제 거주지였다. 에밀리와 민디의 첫 만남 이후 이들은 이곳의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고민을 나누며 우정을 다지게 된다. 팔레 루아얄 정원에 간다면 중앙 안뜰에 있는 줄무늬 기둥 앞에서 드라마 속 에밀리와 민디처럼 인증샷을 남겨보자. 이는 프랑스 미술가 다니엘 뷔랑의 작품인데 파리의 필수 사진 촬영 명소로 유명하다. 휴식을 취하면서 사색을 즐기는 진정한 파리지영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니, 그들의 일상을 엿보고 싶다면 이곳으로 향할 것을 추천한다.

에밀리에게서 오드리 헵번 찾기

블랙 드레스를 차려입고 한껏 멋을 낸 에밀리가 발레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가 공연장은 또 하나의 명소, 오페라 가르니에(Palais Garnier)다. 1875년 오픈한 이곳은 당시 무명의 건축가 샤를 가르니에가 공모전에 당선돼 작업했다.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키고자 화려한 공연

장을 원하던 나폴레옹 3세의 뜻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최고의 건축자재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꼭 공연을 보지 않더라도 공연장 내부를 관람하는 투어가 있을 정도로 그 웅장함이 대단하다. 이곳에 간다면 꼭 봐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천장의 그림과 거대한 상들리에가 인상적인 대공연장이 첫 번째. 천장의 그림은 러시아 출신의 화가 마르크 샤갈의 '꿈의 꽃다발'이라는 작품이다. 그가 사랑했던 차이콥스키, 드뷔시, 모차르트, 바그너 등의 발레와 오페라 장면을 묘사한 작품으로, 실제로 보면 상상 못한 아름다움에 넋이 나갈 정도. 공연장 자체도 멋스럽지만 천장을 가득 메운 그 아름다운 색채와 선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소는 대연회장이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곳은 화려한 골드 컬러의 장식과 수많은 거울로 마치 현실이 아닌 꿈 속의 광경을 보는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있다고 깨닫게 된다면, 수많은 관

광객이 동시에 누르는 카메라 셔터 소리 때문일 듯하다. 꼭 건축이나 그림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아름다움과 흥미에 젖어들기에 충분한 이곳에서 에밀리는 1975년 개봉한 영화 <퍼니 페이스>의 오드리 헵번을 오마주한 모습을 보여준다. 드레스와 표정, 분위기까지 거의 그대로 느껴지니 이 또한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미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파리의 대표 커피숍, 카페 드 플로르(Cafe de Flore)다. 파리의 노천카페에서는 몇 가지 재미난 특색이 보인다. 야외 좌석이 극장처럼 일렬로 배열돼 있다는 것, 그리고 담당 서버가 정장 혹은 긴 앞치마를 두른 채 상당히 정중하게 음료를 서빙해준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카페 드 플로르가 파리를 대표하는 카페로 손꼽히는 건 오랜 역사의 이유가 가장 크다. 1887년 오픈해 지금껏 영업 중인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베르 카뮈, 파블로 피카소, 이브 생 로랑 등 유명 예술가, 작가, 정치인 등이 자주 모였던 곳이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혼자 이곳에 갔다가 자연스럽게 옆자리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핫초코를 마시는데, 이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파리의 작은 문화 중 하나이니 파리를 여행한다면 시도해 보기를! 혹시 모르지 않겠는가. 옆자리 멋진 사람과 우연히 나누는 이야기가 설레는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지.

2020년 10월 넷플릭스에서 이 시리즈가 첫 방영된 이후 엄청난 인기를 얻은 주인공 릴리 콜린스는 영국의 유명 가수 필 콜린스의 딸이다. 2009년부터 TV시리즈에 출연했지만 <백설공주> 외엔 딱히 성공작이 없었던 그녀는 <에밀리, 파리에 가다>의 대성공 이후 세계적인 인기 스타가 되었다. 또한 그녀의 절친으로 등장하는 민디는 극 중 부유한 집안의 중국계 미국인으로 나오지만 자랑스럽게도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노래와 춤, 연기에 대단한 재능이 있어 아무나 입성하지 못한다는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현재 맹활약 중이라고! 올해 안에 추가로 개봉될 시즌2에서도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프랑스 파리 여행 팀



파리의 백화점에 가봐야 하는 이유

파리의 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넘어 문화를 판다. 루프톱에서 삼페인 안잔과 함께 파리 시내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프렐탕 백화점(Printemps Haussmann), 천장의 트램펄린과 화려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등 시즌마다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갤러리 라파예트(Galeries Lafayette), 트렌디함을 무기로 진정한 패션 리더를 유혹하는 봉 마르쎬(Bon Marché) 등 파리에 간다면 반드시 백화점을 둘러보자. 여러 관광지를 하나로 합친 것만큼의 큰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1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는 낭만적인 프랑스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다.
- 2 팔레 루아얄 정원 안뜰의 다니엘 뷔랑 작품. 인증샷 핫플레이스로 유명하다.
- 3 화려한 장식으로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오페라 가르니에의 대연회장.
- 4 프랑스의 오랜 역사를 품은 카페 드 플로르.
- 5 프렐탕 백화점 루프톱에서 식사 혹은 음료를 한잔 마시며 파리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가을이 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운동이 있다. 다름 아닌 배구다.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21-22시즌 여자배구 V리그 경기를 본격적으로 즐기기에 앞서, 알아두면 좋을 배구 기초상식을 준비했다. 글=강은비

성명

사원번호

OX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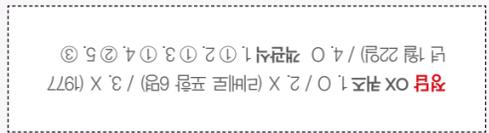
- 1 우리 회사 소속 배구 팀의 풀 네임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이다.
- 2 코트 안 팀별 플레이 선수는 7명이다.
- 3 우리 회사 배구단의 창단일은 1978년 1월 22일이다.
- 4 양효진 선수의 배번호는 14번이다.

객관식

- 1 경기 중 24:24 동점일 경우를 듀스(duce)라고 한다. 듀스일 때 연속해서 몇 점을 따라 승리하는가?
① 2점 ② 3점 ③ 4점
- 2 배구공을 3번 안에 상대편 진영으로 넘기지 못하면 반칙이다. 이때 용어는?
① 포히트(Four Hit) ② 오버타임 ③ 쓰리히트(Three Hit)
- 3 배구에는 총 5가지 포지션이 있다. '윙스파이커'라고도 불리는 이 포지션은?
① 레프트 ② 라이트 ③ 리베로
- 4 어느 포지션보다 토스 능력이 중요한 이 포지션은 공격수들이 공을 때릴 수 있게 세팅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① 센터 ② 세터 ③ 미들 블로커
- 5 상대편의 공격을 받아내는 기술로 선수가 몸을 앞으로 날려 공을 쳐서 수비하는 이 기술은?
① 범프 ② 블로킹 ③ 디그

주관식 ※QR코드 퀴즈!

- 1. 세트스코어 3:0으로 이겼을 때 '씩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 2:0으로 지고 있다가 3:2로 역전할 경우에는 리버스OO이라고 한다. (초성힌트 스O)
- 2. 코트에서 어택라인을 기준으로 전위와 후위로 나눌 수 있다. 후위에 있는 선수는 어택라인을 침범하면 안 되는 규칙이 있는데, 이 포지션만 전·후위 모두 플레이가 가능하다. (초성힌트 르버르)



※지난 호 주관식 답
1. 중추가절
2. 강강수월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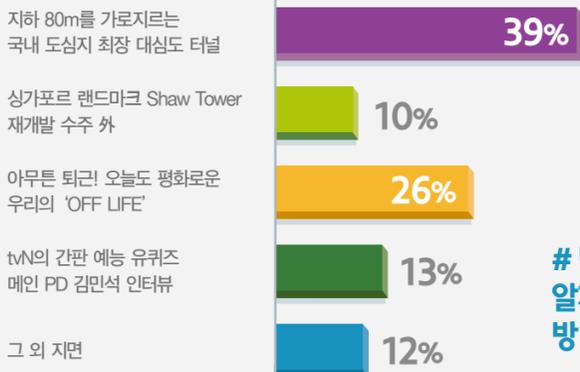


독자 참여 코너

Stay with HYUNDAI E&C TODAY!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은 지난 호의 어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Q 405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Q 다음 호에 읽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 # 현장 직원들의 소소한 일상
- # 코로나 여행 가능 국가 소개
- # 가을에 어울리는 책 추천
- # 남은 21년 알차게 보내는 방법
- # 가을 산책 명소

QR코드를 스캔하면 사보신문이 쏩니다!



상단 퀴즈의 정답과 독자 의견을 QR코드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 방법 ① QR코드 접속
② 설문에 응답하고 주관식 답 보내기
③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 참여 기간 ~11월 5(금)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경품 소정의 상품(5명)

당연한 것을 지키는 기술

안전한 공사현장, 완벽한 품질관리
 당연한 것을 지키는 스마트 건설기술
 현대건설이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건설업계 최초로 IoT센서를
 활용해 현장안전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HloS 현장안전관리 시스템

건설업계 최초로 모바일/웹을 통해
 실시간 현장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스마트 통합 검측 시스템 Q포켓

레이저 펄스로 물체까지의 거리 등을
 정확하게 검측·측량하는
드론 라이이다(LiDAR)

작업용 로봇, 반자동 건설장비 등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 기술로 현장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설 로봇틱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 현장의
 재해위험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재해 예측시스템

3D기반으로 건설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BIM 건설정보 모델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의
 공정/품질/안전을 관리하는
빅데이터/AI 분석

